

물(水)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

-제주 설화를 중심으로-

현길언

요 약

이 글은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양상을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의도가 있다.

물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자원이면서 동시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며 그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인류 공통의 인식은 한국인의 사유체제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제주사람들의 물에 대한 생각은 고종달형 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왕이 날 땅인 제주를 두려워한 중국왕이 풍수사를 보내어 제주의 땅기운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주에는 왕도 나지 못했으며 물도 귀하게 되었다는 이 설화는, 물을 통해서,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인이 살아온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은 제주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며, 제주사회를 통합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물을 지키는 일은 제주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물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물을 단순 자원이나 재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효용적 인식과는 상대된다. 이러한 인문학적 인식은 물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한양대 교수·국문학

* 이 글은 <제주의 물과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濟州島研究會 제10차 전국 학술대회(1994년 12월 2일~3일, 제주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I. 문제

이 논의는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의 양상을 제주 설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려는데 의도가 있다. 최근 제주 물은 단순히 제주사람들의 생활용수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재화를 얻기 위한 자원으로 그 의미가 제고되고 있다. 물은 산업과 경제,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인식도 자원으로로서의 가치를 더 강화하는 효용적 차원에 치우쳐 있다. 그 결과, 물에 대한 논의도 다른 문제(즉 욕망 충족의 문제)에 부수될 수밖에 없으면서, 물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외면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의 본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인식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물의 고유성을 회복할 수 있고, 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화시대 이전에 인간은 물에 대하여 자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인간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효용 대상이 아닌, 인간 중심부에 자리잡은, 자연과 우주와 인간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이제 물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애초부터 인간은 물에 대한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제주인이 물에 대한 인식 양식을 논의하려 한다. 물은 인간에게 극히 효용적이지만, 그 효용성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이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물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자원의 한계에서 인식하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 즉, 인간과 우주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그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물에 대한 인식의 변모 양상

물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물을 따라 이루어졌고, 전쟁도 물을 차지하려는 데서 발발했던 경우가 많다. 사람 살기 좋은 땅은 좋은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동서양을 초월한 보편적 인식이었다. 인간은 애초부터 우주 원리와 물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다소 형이상학적이고 신화적인 발상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경험의 결과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달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地, 水, 空氣, 火라는 4원설을 주장했다. 이렇듯이 인류는 물의 가치를 매우 중시해 왔다.

동양에서도 만물의 생성 소멸을 설명하는 5행설은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과 자연관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행의 순서를 水·火·木·金·土로 되어 있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실용성에 의해서 그 순서가 다소 바뀌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간에 五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5가지 요소이면서, 인간 생사화복의 근원을 설명하는 단서로 중국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물에 대한 동서양의 이러한 인식은 결국 구체적인 인간의 삶과 자연의 현상에서 얻어낸 것이다.

최근에 와서 물은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治水가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서 물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요건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 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면서, 반면에 그 본질적인 의미는 크게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산업과 환경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 산업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물, 물 오염으로 인한 다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 관심사이다. 이것은 물을 욕망 충족 대상으로서만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인식도 경박해지면서 단순화되었다. 이것은 물에 대한 일종의 인간 배신이다. 그러므로 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그 해

결책은 얻기 어렵다. 왜냐면, 그 해결책은 항상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강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물의 오염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쉽게 극복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효용적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재화 획득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나타난다면, 인간이 물을 배신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을 오염시키면서 획득한 재화로 필요한 물을 수입해 이용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물 오염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한 실정이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에서 좋은 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 마시고 있다. 이 문제가 곧 제주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제주 물을 팔아서 돈을 벌자는 발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제 그 실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발상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는 물을 다소 오염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인간은 옛날부터, 물은 우주 만상의 본원체이면서 모든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명체로서의 살아있는 물'로 인식해 왔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혹 그럴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물이 고갈되고 황폐되었을 때, 그 재화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한 인식의 바탕이다. 물은 효용적(재화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이 논의는 시작된다. 이러한 발상은 단순한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는 데서 논의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곧 결론이 될 것이다.

대상에 대한 효용적 가치 판단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과거에 제주는 자원이 없는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대에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은 당대의 실정과 가치기준에서 자연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즉 실용적인 차원으로만 대상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용성이라는 가치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과거부터 대상을 실용적인 가치라는 이

데올로기에 의지해서만 인식하지 않았다 그 한 예를, 한라산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에서 알 수 있다. 산을 효용적 차원에서 인식했다면, 그 산이 바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한라산은 그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하자원도 없었고, 임산자원도 풍부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에는 물도 풍부하게 간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라산이 전부인 제주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데도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靈山으로 인식했다. 사람들은 산을 효용성만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제대로 나타났다. 이제는 한라산이 寶庫라고 한다. 그러나 寶庫도 효용주의적 차원에서 인식한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 寶庫의 개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상을 효용적 가치 중심으로만 인식할 때 대상에 대한 평가는 늘 혼란스러울 뿐이다. 한라산은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관광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 있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가치를 제주의 자연은 간직하고 있다. 그 숨어 있는 실체를 찾아내는 일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인식의 양태를 더듬는데서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자연과 인간과 모든 대상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이 의미있는 것이다. 인문학은 효용주의 너머에서 대상을 인식한다. 물론 효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 대상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효용성을 극복하고 대상을 인식하게 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여 사물과 세계의 原象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대상에 대한 정직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제 물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양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물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인식

물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인식은 종교적이며 신화적이다. 대상을

실용적 가치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심상에 닿아 있는 보편적 인식과 통한다. 이제 그 중에 몇몇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1. 우주의 원상으로서의 물

물은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이다. 동·서양 사람들은 우주와 인간의 삶에서 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식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 물은 창조의 원리로 인식하였다. 기독교 성서에는 그 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야훼의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가 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훼는 그 땅을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차례로 만물을 창조하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위해 에덴이라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네 개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강물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후 인간이 범죄하자, 홍수를 통해 악한 인간들을 진멸하고 선한 노아네 식구들만 지상에 남겨 둔다.²⁾ 이것도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물의 심판은 낡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된 창조를 의미한다. 기독교에서는 물의 주관자는 야훼라고 인식한다. 그가 물을 창조하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다.³⁾ 종교 의식에서도 물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한 성별의식에, 회막에 들어갈 때, 택한 백성을 성결하게 할 때,⁴⁾ 또 부정한

1) 이 이하의 기사는 창세기 1장의 내용임.

2) 창세기 7장, 8장, 이 후에 야훼는 노아를 축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 이 점에서 홍수 사건은 제2의 창세이다.

3)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4) 창세기 19장에서 30장.

자를 성결케 할 때 물을 이용하였다. 죄인이 구원받은 증표인 세례를 물로 주게 되었는데,⁵⁾ 이는 새 생명으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른 종교에서도 물은 중요한 의미체로 인식한다. 불교의 관욕이나, 민간 신흥종교에서 물법신앙 찬물신앙에서 물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흥종교는 한결같이 물의 治病力이나 신통력, 사악이나 부정을 물리치는 힘을 지니고 있고, 천지 조화와 재생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김열규 1992). 이처럼 고급 종교나 신흥종교에서 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도 물이 우주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알타이계 신화에서, 태초에 신이 하늘에서 하계를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물뿐이었다고 한다. 또 태초에는 물만 있었는데, 커다란 물새가 바다로부터 흙을 파서 그 부리로 물 표면에 쏟아 놓아 땅이 되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창세 신화에도, 모든 열도 전체가 굳어진 물방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수메리언 신화는 세계의 정액으로서의 물을 설명하고 있다(김열규 1977:112-124).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자연현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기에 과학적이면서 또한 그것을 초월하는 인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2. 창조의 근원이며 그 원동력으로서의 물

물은 창조의 근원이면서 만상을 새롭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문명은 물의 문명으로 시작되었다. 문명 발상지가 큰 강 가였고, 취락의 형성도 물을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물을 잘 이용하는 종족은 번창했다. 그래서 물을 중요시했고, 또 숭상하기도 했다. 오키나와의 줄다리기 민속놀이에서는, 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했던 샘물과 그 마을을 설촌한 조상신에 대한 제

5) 구약, 레위기, 11장, 14장과 신약, 누가복음 3장.

의식을 거행한다. 이미 사용하지 않은 샘물이었지만, 그 물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대대로 번성해 내려왔기 때문에, 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⁶⁾ 그 결과 그 물은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기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은 개인이나 모든 생물체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 된다. 모든 생물체의 약 70~80프로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체중도 약 3분의 2는 물이다. 더구나 물은 생물체 안에서 쉬지 않고 순환작용을 함으로 생물체를 항상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인체나 생물체뿐만 아니라, 지구권에서도 작용한다. 즉 물은 일정한 水圈을 형성해서 쉬지 않고 순환하면서 지구의 생명을 증진시켜 준다. 물은 수문학적(水文學的)⁷⁾ 순환을 통해, 지구상의 생명체를 번식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물의 작용은 자연 현상이지만 그 기능이 단순한 실용적 가치를 넘어, 땅과 인간을 지배하는 우주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물은 다른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알코올과 합치면 불이 되고, 육신과 합치면 피가 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요긴한 것이 된다. 그것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한다.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한다. 그것의 변신은 새로운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노아 홍수로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나, 물로 세례를 받는 종교의식은 그러한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스통 바슐라르(1980:134)는, 우주만상을 이루는 중심 되는 4원소 중 하나로서, 많은 실체를 동화시키고 많은 요소를 자기에게 끌어들이었다고 했다. 이렇듯이 동화의 매개체로서 역할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설탕이나 소금 같은 대조적인 물질을 비슷한 물질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물이다. 물과 흙이 결합하면 전혀 다른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모든 생산 공장에서 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요, 에너지

6) 필자가 직접 오키나와 大里村 大城部落 현지에서 줄다리기 민속놀이 현장을 참관하면서 확인했음.

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한글판), 1993. p. 119.

를 만드는 데도,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데도 물은 필요하다. 이것은 물의 결합적인 요소, 포용하는 기능에서부터 만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무한한 요소와 기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물이 우주와 자연의 창조의 근원에 이른다고 인간은 인식하게 되었다.

IV. 한국 설화와 민속에 나타난 물

농경문화를 이루고 살아온 한국인의 물에 대한 인식은 구비 문학이나 신앙 풍속에 잘 나타나 있다. 또 山水라는 개념을 자연의 대유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과 관계 있는 모든 도덕적 심미적 역사적 가치로 인식했다. 예를 들면, 흐르는 강을 불변의 미덕으로, 정결함으로, 장구한 역사로, 반 세속적인 삶의 공간 등으로 비유되었다. 그러한 예를 「찬기파랑가」, 「용비어천가」, 「청산별곡」, 江湖歌道の 여러 시조와 가사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화나 설화의 물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창조의 원천이고, 시련의 과정이기도 했다. 결국,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우주만상의 원상으로서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동명왕 신화」에서 유화는 웅심연 물 출신이고, 박혁거세 왕비 알영도 알열정이라는 우물에서 나왔다. 고려왕조 여시조인 용녀 또한 개성대정(井) 물의 여인이다. 이들은 하늘의 남신인 해모수 박혁거세와 상대되는 땅의 물 여신으로서, 한 왕국을 건설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점에서 물이 만상의 원동력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것은 물이 지닌 풍요성이 농경사회의 문화의식을 대변하면서, 여성의 다산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흔히 여성의 水性을 섹스 또는 창조성으로 물에 비유되는 것과 통한다.

물에 대한 민간 신앙은 신화의 물 상징성과 관계가 깊다. 한 국가 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여성신의 풍요성은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의 물할미로 일컬어지는 개성대정은 神井으로 일

켜어지면서 井祠까지 갖추고 있다고 한다(김열규 1992). 강이나 샘에 제사 지내는 민간 신앙은 삼국시대에 나타난다. 고구려와 신라 시대에 河川祭의 기록이 보인다.⁸⁾ 이러한 제의식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기우제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대천 제사의 민속을 낳게 하였고, 이것이 용왕 제의식과 정화수 민간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V. 물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

옛날 제주에는 물이 귀하었으므로 물에 대한 인식도 육지부와는 달랐다. 물이 사람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단지 생활자원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고, 제주의 역사적인 존재성과 관련지워 인식했다. 이렇게 물을 효용론의 한계를 넘어 인식했다는 점에서, 물 문제를 논의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번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제 그러한 제주인의 인식 양상을 신화와 「고종달형 전설」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신화에 나타난 물의 의미

제주 무속신화인 「천지왕 본풀이」에는 천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뭉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子方에서 열리고 乙丑年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겼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곤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져 갔다.

8) 三國史記, 卷 32. 雜志·1 祭祀.

이 때, 하늘에서 靑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물이슬)이 솟아나. 서로 含水되어 陰陽相通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생겨난 것이 별이었다(현용준 1977:11)

천지 생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 본풀이에서도, 기독교의 성서와 같이 우주의 창조는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세계로 차차 변모해 가면서 만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 상태가 바로 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천지개벽의 근원이 되는 물을 源水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김열규 1977:115), 애초부터 인간들은 우주 근원에서 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천지창조 신화보다 더 뒤에 이루어진 삼성신화와 신당본풀이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이루는데 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성신화에서는, 물 건너 지역에서 세 여신이 들어와 제주의 농경문화가 열려졌다는 내용이다. 수렵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제주 三神은 어느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먼 바다 건너 나라에서 오곡 씨앗을 갖고 온 여자들을 만난다. 이들 三神은 여자들을 배필로 삼았고, 여자들이 갖고 온 오곡씨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여성신이 바다 저편에서, 즉 바다로부터 내도했다는 것은 고구려 동명왕 신화나 신라 박혁거세 신화에서, 여신이 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성을 고려해서, 섬 안과 섬 밖, 즉 바다 건너로부터 도래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교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유독 여신이 오곡 씨앗을 갖고 들어와 비로소 농사짓기를 시작했다는 모티브는, 농경 문화가 외래로부터 도래했음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풍요의 여성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여신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원동력이 되는 물의 상징성과도 통한다.

제주시 용담동 다끄네 궁당 본향당에 얽힌 「천조또마누라본풀이」에서, 사냥하면서 살던 소천국이 강남천자국에서 온 여신을 맞아 배필로 정해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야기되는 갈등이 나타나 있다(현용준 1980:591-596). 여성신이 바다로부터(혹은 바다 건너에서) 들

어왔다는 것은, 물-남성, 바다-여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풍요가 바다에서 온 여성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 신화나 설화에서, 물은 우주의 근원이고 풍요의 원천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와 통하는 것이면서, 물이 효용적 의미 의외에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어 제주 사람들이 즐겨 향유해 왔던 「고종달형 전설」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의 양태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2. 고종달형 설화에 나타난 물

제주는 산과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는 모두 물이고, 산 속에도 많은 물이 있다. 그러나 옛날 제주는 물이 귀하여서 척박한 땅으로 인식했다. 제주는 물이 귀했고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지만, 물을 단순히 효용성의 차원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물은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점을 제주에 널리 퍼져 있는 「고종달형 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⁹⁾

고종달형 전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주는 원래 세상을 지배할 왕이 태어날 땅(王候之地)이었는데, 이 사실을 안 大國(中國) 왕이 염려해서, 풍수사인 고종달을 제주에 파견 인물이 날 만한 地脈을 끊어버리도록 명한다. 명을 받은 고종달을 지금 구좌읍 종달리 지경으로 들어와서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地理書에 있는 대로 인물이 날 만한 지맥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몇몇 곳은 파혈에 실패한다. 이 때문에 제주에는 물이 귀하게 되었고, 인물도 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전설은 제주 각지에 퍼져 있는데, 그곳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 약간씩 변이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9) 고종달형 전설에 대해서는, 현길언(1981)을 참고할 것.

은 토산리 샘과 홍로샘, 화북동 행기물에 얽힌 전설과, 산방산 용머리 전설, 경주김씨 입도 전설, 차귀도 전설 등이 있다. 이러한 전설은 풍수전설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제주사람들의 삶의 역사성이 형상화되어 있다.

1)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설명하는 물

고종달 전설은 제주가 不毛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제주의 존재적 상황과 그 이유를 샘이 없다는 지리적 조건을 통해 고종달의 단혈로 설명하고 있다.

王候之地인 제주를 두려워한 大國王이 풍수사 고종달이를 제주에 보내어 인물이 날 地脈을 끊음으로, 결국 제주에는 샘도 말라버렸고, 왕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의 불모성은 人力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상황을 단맥과 물 모티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샘이 없다는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연전설이기도 하지만, 제주가 본래는 〈王候之地〉였다가 고종달에 의해 과혈됨으로 불모의 땅이 되었다는, 제주의 존재성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육지부 전설에도 人物이 날 地脈에 의해 인물과 그 지역의 흥망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설은 한국 풍수사상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고종달형 전설」은 단순히 한 인물이나 가문의 문제를 이야기화하지 않고, 제주 섬의 존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더구나 그것을 물 모티브를 통해서 형상화시켰다는 것은, 물을 단순히 효용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만 생각하지 않고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

제주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고종달의 단맥 때문이었다. 그 결과 물이 귀하게 되었고, 또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설에서는 인물과 물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에 대해 생명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풍수사상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

면, 물을 자원 이상으로 인식했던 인문학적 인식의 소산이다.

2) 생명의 근원과 사회 통합의 원동력으로서의 물

제주의 불모성이 물에 기인했다는 것은, 물을 단순히 생활 用水라는 자원적 가치 이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전설에서, 물을 절대 권력의 상징인 王-대국왕도 두려워하는 인물-을 낳게 하는 원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물은 바로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사회 통합의 힘을 낳는 원천으로도 인식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전설에서, 호종단이 단혈을 하면서 섬을 돌아다닐 때에, 위기에 처한 水神이 농부의 구원을 받아 위기를 넘김으로 호종단이 斷穴에 실패한다. 토산리 샘과 흥로 지장샘과 화북 행기물 전설이 그 경우이다. 여기에서 水神을 뱀이나 구체적인 노인으로 형상화된 것은, 물이 구체적인 생명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물을 우주와 생명의 창조성과 관련지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는 무속신앙이 번창했으나, 그 무속신은 인격체를 가진 신들이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신이 아니라, 제주 각 지역 마을사람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중심부에서 쫓겨온 나약한 인격적 신들이었다. 이와 같이 제주 당신들은 자연물을 신격화하는 예는 드물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신으로 변신해서(水神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은 특이하다. 이 특이한 神觀은 물을 다른 자연물과는 달리 자연의 생성을 이루는 생명성을 지닌 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과 생명성은 호종단에게 부친의 묘자리를 점지 받아 발복한 경주 김택 이야기와도 통한다. 경주 金宅 조상이 물 혈을 끊으러 다니는 풍수사 고종달이에게 부친을 장사지낼 명당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水脈이 바로 富와 직결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水의 穴이 富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물의 이미지와 富가 일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물을 지키는 일과 존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

고종달이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서에 나타난 대로 인물이 날 만한 지맥을 파헤치다가, 토산리 지경 거슨샘이물과 흥로 지장샘, 그리고 화북 행기물에서 실패한다. 그것은 사람으로 현신하여 나타난 수신의 청을 농부가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왕이 날 만한 지맥을 파헤치면서 고종달이가 토산리 지경, 거슨샘이 단샘이까지 왔을 때였다. 이 때 샘을 지키던 水神인 뱀이 발가는 농부의 소길마 밑으로 들어가 숨어 목숨을 연명했다. 흥로 지장샘이와 화북동 행기물의 경우에는, 수신이 사람으로 변신되어 농부에게 도움을 청하자, 농부가 도와주어서 고종달의 단맥이 실패했다.

농부의 도움으로 수신이 위기를 면함으로 단맥을 막을 수 있다는 에피소드는 단순히 샘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증거물적 이야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제주에는 그래도 샘이 살아남게 되었고, 제주 역사도 완전한 불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기에 이 에피소드는 제주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물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키는 일로 인식했다. 또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인 대국왕이 보낸 고종달이와 대결했다는 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종달 전설 외에도, 제주에는 몰락한 인물들 이야기가 많다. 그 몰락의 원인이 바로 외부 세력 억압이었다. 체력이 특이한 장수들이 이데올로기 체제에 의해 좌절하거나 완전 몰락하는 경우가 전설화되었다. 이러한 몰락한 인물의 이야기 시초가 바로 「고종달 전설」이라는 점에서, 이 전설은 제주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지키는 일은 인물을 키우는 일이며,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VI. 물과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제주는 많이 변했다. 「고종달형 전설」의 허구도 드러났다. 그것은 심심풀이 이야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땅 위에는 샘이 많지 않지만, 땅속에는 많은 물 자원이 있다. 석탄보다 석유보다도 더 값진 물을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은 정말 명산이고 풍요의 산이다. 그렇다면 정말 「고종달 전설」은 쓸모 없는 심심풀이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로 제2의 고종달형 전설을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지천으로 풍부한 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다시 그 옛날 물이 고갈했던 고종달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곧 우주론적으로 물의 의미를 생각해서 물을 인간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고종달 전설 시대의 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물을 효용적 가치의 한계 안에서 자원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키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는 극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데올로기는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치가 변할 때마다 변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결국 필요에 의한 인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주고받기의 이해 관계에서 모든 인식과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극히 불확실하다.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물보다 더 효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 나타난다면, 물을 배신해도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것은 극히 효용주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물을 인식해서는, 제주는 다시 「고종달 전설」이 만들어지던 그 불모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물은 효용적 가치 이상이 것, 바로 우주와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의 원동력이며, 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의 효용적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또 다른 가치이고, 자원적 가치 이상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의 고갈성 그 자존의식의 황폐성 그 꿈 없는 삶의 고통스러움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그 때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제2의 고종달 전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회복받을 수 없을 존재의 절대적 황폐상황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열규

1977 『韓國의 神話』, 일조각.

1992 “신화·제례·민속신앙·문학에 나타난 물”, 민족문화대백과사전(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길언

1981 『제주도 장수설화』, 흥성사.

현용준

1977 『제주도신화』, 서문당.

1980 『제주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바슬라프, 가스통

1980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Cheju Islanders' Humanistic Perception of Water

Hyun, Kil-U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people in Cheju feel about water, focusing on traditional Cheju stories. Water is not merely the resource for human life but also a basic element in forming the Universe, Nature and human beings : it is the basis for creation and its driving power. This universal perception is represented in Korean thought as well.

The feeling of Cheju people about water is well manifested in the *Kochongtal-hyung* story : A Chinese king who was worried about Cheju where a future king was predicted to be born sent a *Pungsusa* to demolish the power of land and as a result, no king was able to be born in Cheju and water became scarce. This story tells us the identity of the Cheju people and their life history in connection with water. In addition, water is the basis of life for people in Cheju and the driving force which unifies Cheju society. Therefore, protecting water is to protect the identity of people in Cheju.

This perception of water is in sharp contrast with today's perception which considers water as a simple resource or means to earn money. This perception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discussing water in Cheju in the future.